

-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동반 성장을 위한 -

의 정 토 론 회

- 일 시 : 2019. 12. 17.(화) 14:00
- 장 소 : 홍성문화원
- 주 최 : 충청남도의회



충청남도의회

메모지

의정토론회 개요 및 흐름

토론회 개요

- 일 시 : 2019. 12. 17.(화) 14:00 ~ 16:00
- 장 소 : 홍성문화원
- 주 최 : 충청남도의회
- 주 제 :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동반 성장을 위한 의정토론회

진행 흐름

시 간			내 용	비 고
부터	까지	소요		
< 개 회 식 >				
14:00	14:05	5′	개회 및 국민의례	사회: 교육위 (수석)전문위원
14:05	14:10	5′	내빈소개, 개회사, 축사 등	이종화 의원
< 토 론 회 > ※ 좌장: 이종화 의원				
14:10	14:30	20′	주제 발표 ▶ 김성길/공주대학교 도시교통공학부 교수 ☞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동반성장 방안	
14:30	15:10	40′	지 정 토 론 ▶ 이왕건/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▶ 서용준/홍성군청 도시계획 전문위원 ▶ 류철호/(사)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회장 ▶ 유환동/홍성문화원 원장	토론자 전체
15:10	15:30	20′	폐 널 토 론	발제자 및 토론자
15:30	15:50	20′	중 합 토 론	
15:50	16:00	10′	정 리 및 폐 회	좌장(이종화 의원)

메모지

목 차

■ 주제발표

- ☞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동반 성장 방안 1
김성길(공주대학교 도시교통공학부 교수)

■ 지정토론

- ☞ 성공적인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
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13
이왕건(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)
- ☞ 유동인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19
서용준(홍성군청 도시계획 전문위원)
- ☞ 지역상생 경제 활성화 방안과 공동체 의식고취 25
류철호(사단법인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회장)
- ☞ 유환동(홍성문화원 원장) 29

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동반 성장을 위한
의 정 토 론 회

토론

유 환 동

(홍성문화원 원장)

를 최대한 빨리 조기에 완공시키고 홍성읍과 도청 간 대중교통 운행수를 늘려야 될 것이다.

- 비어있는 첨단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등 적극적 기업유치를 통하여 상주, 유동인구를 늘리고 홍성읍과 홍북읍(내포신도시)간 비어있는 공간의 연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.
홍성읍 - 산업단지 - 홍북읍(내포신도시)

- (특성화 전략의 필요)
현재 홍성읍의 복개주차장 100m 반경에 52개의 한의원, 병원 16개소의 약국이 밀집되어 자연스럽게 의료타운이 형성이 되어 주변 상권을 주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주변의 타 업종과 함께 특화거리 범위를 확대해야 될 것이다.

- 홍북읍(내포신도시)은 도청 주변의 계획된 도시로 문화, 예술, 공연 등을 활성화시킬 문화체험시설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문화 특화 거리 조성을 통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여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을 기대하고 생활 거주 환경 확보 즉 정주여건의 불안요소를 제거해야한다.

- 장항선 철도의 복선화에 따른 완공을 대비 사전에 관광객 수요를 예측하여 홍성읍성(역사성)과 용봉산(자연경관)과 홍북읍(문화예술의 공간)을 잇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위한 대형 숙박시설 등 관광 거반 시설 확충과 지역 사회의 전반 흐름을 함께하고 있는 지역 내에 소재한 대학과 작은 규모라도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한다.

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동반 성장을 위한
의 정 토 론 회

주제발표

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동반성장 방안

김 성 길

(공주대학교 도시교통공학부 교수)

지역 상생 경제 활성화 방안과 공동체 의식고취

류철호 | (사)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회장

- 2012년 충남도청이 이전해오면서 지역주민들은 도청수부도시 주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도청주민으로서의 새로운 생활문화방식의 접근으로 인한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람과 이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음.
- 또한 홍성읍 원 도심 공동화 현상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, 경기 불황과 저출산 고령화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심각해지는 원도심 공동화를 대처하기엔 주민 스스로는 역부족인 상태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절실한 시점임.
- 홍북읍(내포신도시)은 도 산하기관, 지원단체등의 이전이 미비하고 첨단 산업단지 미분양, 열 병합 발전소 문제, 축산 악취 등이 정주여건 불안 요소로 작용 지역 인구를 유입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음.
- 주민의식에 홍북읍(내포신도시)의 일부 주민은 홍성군민이 아닌 내포신도시 시민이란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. 소규모의 지역 이기주의를 경계하면서 이를 해소시킬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. 현재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⇒시로의 전환 노력이 성사된다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 기대된다. 또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행사에 상호간 인적, 물적 자원의 교류가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.
- 이와 함께 홍성읍과 홍북읍(내포신도시)가 같은 홍성군 주민이란 공동체 의식을 위해서는 5분 거리 밖에 안 되는 교통생활권 확보가 시급히 필요하다. 2022년도 착공예정으로 되어있는 홍성역⇒도청(5분거리) 연결되는 산업도로

01 들어가면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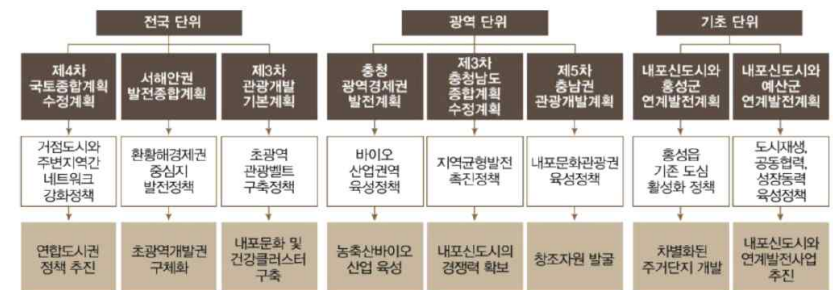
1.1 내포신도시개발의 의의와 홍성군 도심공동화 우려

- 충남도청이 행정자치적 측면과 지역발전적 측면에서 충남도 행정구역 내로 이전
- 광역적 차원에서 경부축 중심의 기존 지역 발전축을 서해안 쪽으로 이동시키는 계기로서 인식
- 내포신도시 건설로 인한 지역발전의 기대와 함께 홍성읍의 **공동화**에 대한 우려도 부각되기 시작
- 실질적 지역균형발전과 도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변 시군과 함께 연합도시권으로 상생 발전 필요. 즉, 내포신도시와 홍성읍은 **동일 생활권, 하나의 그릇**으로 보아야 함



01 들어가면서

1.2 전국/광역/기초 단위 공간정책



- 국가 및 지역 정책의 흐름에 편성하여 최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전략 필요
- 기존의 지역발전정책(초광역개발권, 광역경제권, 기초생활권)을 대체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제시. 중추도시생활권, 도농연계생활권, 농어촌생활권으로 구분되는데, 내포신도시권은 대체로 홍성, 예산을 중심으로 도농연계생활권이나 중추도시생활권에 적용 가능

토론

지역 상생 경제 활성화 방안과 공동체 의식고취

류 철 호

(사단법인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회장)

01 들어가면서

1.3 국가 기간망 계획

- [철도] 내포철도(안흥항-서산공항-삼교역), 수도권 1호선 연장(신창역-홍성역)



자료: 충남연구원, 내포신도시
환경해권 중심도시 육성전략,
최종보고 설명자료

01 들어가면서

1.3 국가 기간망 계획

- [도로] 내포-태안(서산공항), 내포-세종간 도로, 내포-북천안IC 도로, 내포-평택당진항 도로



자료: 충남연구원, 내포신도시 환경해권 중심도시 육성전략, 최종보고 설명자료

○ 또한, 내포신도시의 상주인구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축사악취 관리, 사조농산 이전, 스포츠센터, 도립미술관, 병원, 가족통합지원센터, 건강생활지원센터 뿐 만 아니라

○ 용봉산과 연계한 시설, 국공립어린이집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도 필요함(2019.10월 현재, 행복도시 내 국공립어린이집 54개소, 인구 24.7만명, 인구 4,578명 당 1개소 vs 내포신도시 내 국공립어린이집 없음, 2020년도 1개소 개원예정)

□ 맺음말

○ 개별적 행정단위 보다는 통합적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함. 홍성읍, 내포신도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그릇으로 보아야 함

○ 홍성읍은 홍주읍성-홍성역-내포신도시-용봉산 등 주요 시설만을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 노선 신설, 홍성역-홍주읍성간 특화 셔틀버스 등 서해선 개통에 대응한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유동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

○ 내포신도시는 혁신도시 지정 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유치하여 상주인구를 유입시키고,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가족 동반 이주율을 제고 하여야 함

○ 내포신도시 내 홍성, 예산의 연계협력을 위해 충남도가 참여한 공동관리기구를 적극 추진하고, 더 나아가 지자체간에 인프라를 공유하고, 인접 지자체간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는 홍성·예산의 공유도시 정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

○ 추가로 내포신도시 내 계획변경은 현재 충남도에서 진행 하고 있는데, 내포신도시 계획 변경도 신도시 내 뿐만 아니라, 주변지역과 연계하고 기능 분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

02 내포신도시 및 홍성군의 실태

2.1 내포신도시 및 홍성읍의 현황

홍성읍

- 위치 :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시가지지역
- 면적 : 약 4,238천 m² (128만평)
- 거주 세대/인구 : 약 1만8천세대 / 약 3만9천인
※ 2019년5월 기준
- 홍성 군청소재지로 군의 중앙에 위치하여 행정, 경제, 교통, 문화, 교육, 상업의 중심기능 수행

자료: 서용준, 2019

내포신도시 (홍북읍)

- 위치 :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+ 예산군 삽교읍 일원
- 면적 : 약 6,283천 m² (190만평, 전체는 300만평)
- 계획세대/인구 : 약 4만2천세대/약 10만인(홍성 5만8천인)
- 입주세대/인구 : 약 1만세대 / 약 2만5천인
- 목적: 현황해권 중심도시 건설 및 충청남도 균형발전 선도
-서북부지역 개발효과를 남쪽낙후지역으로 확산하는 거점



02 내포신도시 및 홍성군의 실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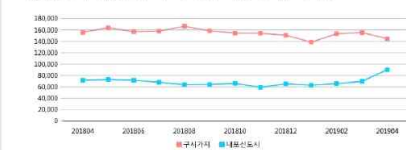
2.2 내포신도시 및 홍성읍의 유동인구 현황 (자료: 서용준, 2019)

홍성읍'은 오랜 기간 중심 기능이 축적되면서 다양한 목적의 유동인구 확보가 지속되는 반면 '내포신도시'는 이전기관종사자 주거정착, 기관방문자 등 유동인구 부족

전체 유동인구

※ 소상공인상권분석시스템

- 홍성읍의 유동인구가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남



요일별 유동인구

※ 소상공인상권분석시스템

- 내포신도시는 주중인구가 더 높게 나타나며,
- 홍성읍은 금토 인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



연령별 유동인구

※ 소상공인상권분석시스템

- 20대, 40대~60대 이상은 홍성읍 유동인구가 높고,
- 10대와 30대는 내포신도시의 유동인구가 더 높게 나타남



소상공인 업소 수 변화

※ 충남연구원 충남소상공인 연소보5(12~17)



02 내포신도시 및 홍성군의 실태

2.3 내포신도시는 침체, 홍성읍은 쇠퇴 (자료: 서용준, 2019)



02 내포신도시 및 홍성군의 실태

2.4 분석결과 (자료: 서용준, 2019)

내포신도시는 인구유입 부족, 홍성읍은 인구 유출이 문제

인구감소, 고령화, 대도시 집중화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

홍성읍은 기존 다양한 기능 유지, 서해선 개통 → **유동인구(방문인구)**로 승부 해야

내포신도시는 수요에 대응한 신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신도시

광역교통망 확충, 역사·문화·관광자원을 활용하여 **주변 시군과 연계협력 강화 필요**

□ 홍성읍은 유동인구(활동인구) 활성화 정책과 생활환경 개선 병행

- 홍성읍은 인구감소·고령화·저출산이라는 메가트랜드, 내포신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한 상주인구 감소는 불가피함. 따라서 홍성읍은 유동인구를 증대 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함
- 홍성읍은 역사·문화·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, 서해선 개통으로 수도권 전철망에 편입되어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
-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, 홍주읍성-홍성역-내포신도시를 잇는 간단한 노선과 짧은 배차간격을 가진 간선급행버스 노선 신설, 홍성역-홍주읍성 등 앵커시설만 연계하는 특화셔틀버스 도입, 홍성역의 불편함이 없는 환승시설 설치, 홍주읍성 주변 보행네트워크 구축과 보행거점 개발 등이 유동인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
- 유동인구 증대 정책과 더불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생활환경 개선 정책도 필요함. 주거이동과 빈집 증가는 위기이지만 기회요소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시기에 도로, 주차장, 공원,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함.

□ 내포신도시는 상주인구 증대에 주력

- 내포신도시는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신도시이므로 추가적인 고용창출이 필수적임. 지금까지 입주한 기관으로 인해 인구 2만 5천 명 정도가 내포신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고, 상주인구를 늘리려면 추가적인 일자리가 있어야 함
-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이고, 플랜B도 함께 추진해야 함. 개별적인 공공기관 유치, 신설되는 충남도 산하기관의 유치, 신도시 내 첨단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의 벗어나 주변의 산단 개발에 따른 상주인구 유치도 필요함

고 있지만, 유동인구는 증가하는 현상과 같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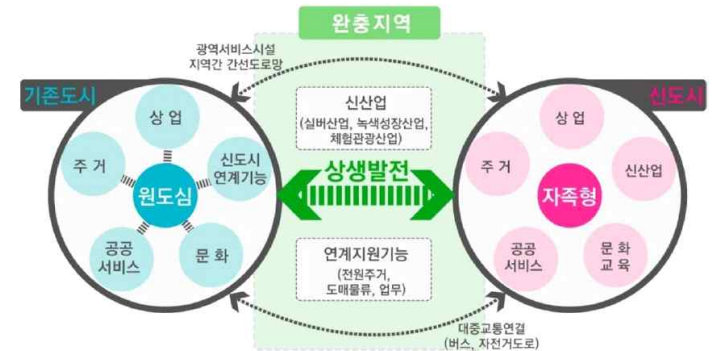
- (수도권 전철망에 편입) 2022년 개통예정인 서해선과 연계노선인 신안산선(2024년 개통 예정) 및 소사-원시선(개통완료)의 개통으로 서해안축 남북종단 간선 철도망이 구축되고, 수도권 전철망에 편입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도 홍성읍의 유동인구 증가 가능성은 높음
- (홍성읍-내포신도시의 교통망 개선) 홍성읍의 홍성역과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내포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가 2022년초 개통되면 간선 교통망 확충이 확충되어 홍성읍과 내포신도시는 더욱 연결성이 높아짐

□ 홍성읍과 내포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봐야

- 홍성읍과 내포신도시 문제를 따로 분리해서 보면 문제 해결이 안 됨. 홍성읍도 내포신도시도 홍성이기 때문에 하나의 생활권, 하나의 그릇으로 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함
- 홍성읍은 천년동안 형성되어 오면서 상업, 행정, 도소매, 숙박, 금융, 의료, 복지 등과 관련한 다양한 기능들이 축적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
- 하지만, 주거기능은 건물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편리성 저하로 경쟁력 약화
- 내포신도시는 계획적으로 광역행정기능 및 공동주택과 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업·업무 기능이 들어서 있음. 홍성읍에 비해 기능이 단순함
- 홍성읍과 내포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접근성이 좋고, 기존에 특화기능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복합화·집약화해야 함. 홍주읍성 주변과 홍주읍성에 홍성역을 잇는 조양로 일원이 이러한 곳임

03 내포신도시 및 홍성 원도심 동반성장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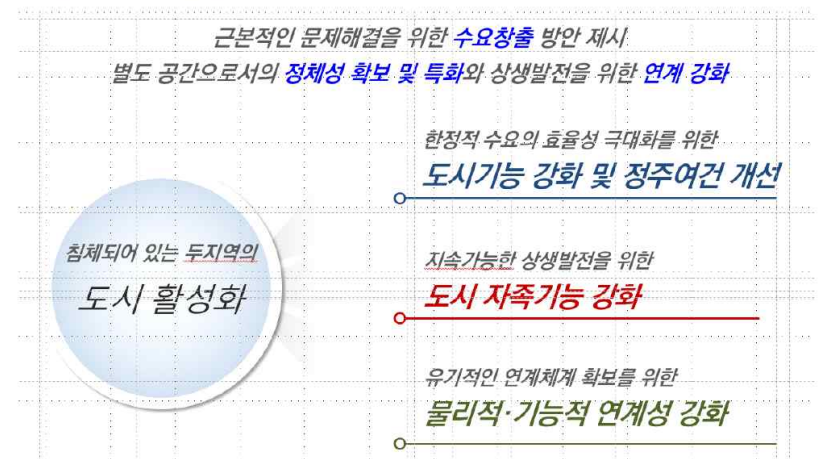
3.1 동반성장의 기본전략



- 주변지역 기능을 특화, 신도시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 (특화기능, 역사문화)

03 내포신도시 및 홍성 원도심 동반성장 방안

3.1 동반성장의 기본전략 (자료: 서용준, 2019)



03 내포신도시 및 홍성 원도심 동반성장 방안

3.2 도시기능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

- 내포신도시
 - (북측 대학부지) 종합운동장용지(지자체 매입), 종합의료시설용지, 관광숙박 및 컨벤션용지, 산업 연계 교육시설용지
 - (종합병원 및 복지시설부지) 업무시설용지, 특화 단독주택용지
 - (유보지) 유통시설용지(농축산물유통센터), 자동차검사소, 자동차정비시설, 도시농업용지(텃밭)
- 홍성읍
 - 홍주읍성 남문앞 커뮤니티광장 조성을 통한 원도심 블루-그린 네트워크 구축 (종합병원 및 복지시설부지) 업무시설용지, 특화 단독주택용지
 - 홍성역앞 복합시설 조성 및 홍성역-홍주읍성을 잇는 특화셔틀버스 도입

03 내포신도시 및 홍성 원도심 동반성장 방안

3.3 도시자족 기능강화

-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유치
- 개별이전 공공기관(중부지방해양경찰청, TBN 충남교통방송 등), 충남도 신설기관 유치(충남관광공사, 도립박물관 등)
- 홍주읍성 남문앞 커뮤니티광장 조성을 통한 원도심 블루-그린 네트워크 구축 (종합병원 및 복지시설부지) 업무시설용지, 특화 단독주택용지
-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수소기반 산업 육성
-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자동차서비스산업 육성
- 내포신도시 주변 산업단지 개발

유동인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

서용준 | 홍성군청 도시계획 전문위원

□ 여건 진단

- (내포신도시의 입주와 홍성읍의 쇠퇴 가속화) 2012년 12월 내포신도시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자, 2017년까지 홍성군 내 읍면에서 약 8천명이 내포신도시로 이동하였고, 그 중에 홍성읍에서 가장 많은 약 3천명이 이동
- (내포신도시로 인한 홍성군 인구 증가와 인구 빨대효과) 홍성군의 인구는 내포신도시 초기 입주가 이루어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0.3만명으로 증가했으나, 내포신도시가 있는 홍북읍을 제외한 모든 읍면에서 인구가 감소함
- (내포신도시는 태생적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신도시) 도청, 교육청, 경찰청 등이 초기에 입주하여 내포신도시 인구가 증가 했지만,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에 수요에 대응하여 입지한 신도시가 아닌 약 10만 인구의 2개 군지역에 위치한 내포신도시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함
- (내포신도시의 침체와 홍성군 인구 감소추세 전환) 최근 홍성군 인구 증가를 견인한 내포신도시가 큰 수요창출 없어 침체되면서, 홍성군의 인구도 2018년 10.1만명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됨
- (내포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홍성읍의 유동인구 증가) 충남도청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내포신도시 뿐만 아니라 홍성읍의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음. 이러한 현상은 세종시 개발로 인해 공주시의 인구가 줄어들

03 내포신도시 및 홍성 원도심 동반성장 방안

3.4 물리적 기능적 연계성 강화

- 홍성읍-내포신도시간 교통네트워크 구축
(생활권 확대를 통한 유동인구 극대화)
- 광역교통망 확충
(수도권/대전-세종-천안아산-청주권, 공항, 항만과의 연결성 강화)
- 내포첨단산단 진입도로, 북서부순환도로 등 도로망 구축
- 홍주읍성-홍성역-내포신도시 간 간선 대중교통 신설
- 홍성읍-내포신도시를 잇는 간선 자전거도로 시설 확충

03 내포신도시 및 홍성 원도심 동반성장 방안

3.5 동반성장 위한 세부전략 (자료: 서용준, 2019)

주변 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**관광호텔·컨벤션 기능유치로 유동인구 유입 도모**

앵커시설 도입 및 연계를 통한 관광특화 계획

- 내포신도시의 활동인구 유입을 통한 활력 도모를 위하여 앵커시설(관광호텔·컨벤션) 도입 및 기존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 특화 계획



■ 관광호텔·컨벤션

- 부티크 관광호텔과 회의장이 구비된 컨벤션을 통해 일반 관광객 및 비즈니스 고객 집객효과 유발



03 내포신도시 및 홍성 원도심 동반성장 방안

3.5 동반성장 위한 세부전략 (자료: 서용준, 2019)

홍성역 복합시설 설치, 특화셔틀버스 도입을 통한 유동인구 증대 도모

복합광장(주차장+방문자센터 등) 설치

- 홍성역 앞 광장(계획)과 연계하여 주민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복합시설(주차장, 복합문화시설, 광장) 설치
⇒ 지형을 활용한 입체계획 수립



홍성역사연계
옥상광장
+
1F 환승센터
및 광장
+
지하 주차
시설

순환형 특화셔틀버스 도입

- 홍성역-홍주읍성을 연결하는 순환형 특화셔틀버스를 도입하여 연계성 확보
- 편의성 증대를 통한 이용객 유도로 중심가로(조양로) 활성화 도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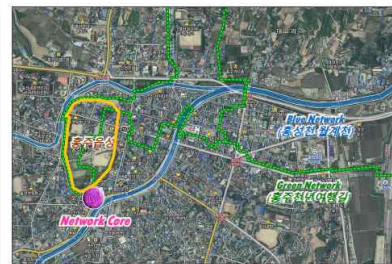
03 내포신도시 및 홍성 원도심 동반성장 방안

3.5 동반성장 위한 세부전략 (자료: 서용준, 2019)

블루-그린네트워크를 연계한 Core(커뮤니티광장) 조성으로 원도심의 도시활력 창출

홍주읍성 연계네트워크 및 Core 계획

- 원도심의 활력 도모를 위하여 홍성 그린네트워크(홍주읍성 둘레길 등)와 홍성 블루네트워크(홍성천-월계천) 연결 계획
- 네트워크의 결절지점을 '네트워크 코어'로서 커뮤니티 광장(공원) 조성 계획 (※ 지형을 활용한 지하주차장설치계획 포함)



■ 기존 자동차관련시설 이전

- Network Core 부지에 위치한 자동차관련시설을 현재 내포신도시 유보1 용지로 이전 제시
- 자족기능 이전에 따른 내포신도시의 도시활력 확보 및 Network Core 용지의 대체용지 문제 해결 가능



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동반 성장을 위한
의 정 토 론 회

토론

유동인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

서 용 준

(홍성군청 도시계획 전문위원)

03 내포신도시 및 흥성 원도심 동반성장 방안

3.5 동반성장 위한 세부전략 (자료: 서용준, 2019)

종합병원, 종합운동장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주기관 종사자의 가족 동반 이주를 제고

주민 의료서비스 확보를 위한 종합병원 유치

- 기존 용지는 아파트 밀집지역 내 위치하여 입지 부적절
- 종합병원은 간선도로변 입지 선호
- 대학1 용지 일부를 의료시설용지로 위치 변경
- 도시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종합병원 유치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, 공공기능 종합병원 등의 입지 고려 존치

[별표2] 이전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(제16조관련)

지원 대상	세 부 기 준	지원기준 및 상한액	비 고 (제한사항)
의료 시설	• 개발계획상 의료시설용지에 입주하는 (의료원) 3층도면면적(300㎡)에 해당하는 이하의 병원 • 종합병원 (3개 진료과목, 100명상 이상) • 병립입원병상 병상소로 7개 진료과목, 100명상 이상)	• 지원기준 : 설치면적 1000㎡내 • 병원 설치면적 500㎡이내 • 지원 상한액 : 종합병원은 1,000억원 • 병원 : 800억원	지동자금등 사용제한 실례에 따라 지원



주민여가 확보를 위한 종합운동장 설치

- 학교 운동장이 협소하여 공동 운동장 설치 필요
- 기존 체육공원과 연계한 주민 체육시설 요구 증대
- 육상트랙, 축구장 등을 지자체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용지 반영 필요



03 내포신도시 및 흥성 원도심 동반성장 방안

3.5 동반성장 위한 세부전략 (자료: 서용준, 2019)

농축산물유통센터 및 도시농업용지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인구 유입 도모

도시농업을 통한 주민들의 여가생활 확보

- 도시에서의 농사활동을 통하여 먹고 보고 즐김과 동시에 생산적 여가활동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 도모
- 대규모 도시농업용지 계획을 통하여 '도시와 농촌의 공존'이라는 흥성군만의 정체성 확립



내포신도시의 해결을 위해 자족기능 강화 필요 → 특화단독주택 계획 및 업무시설용지 추가 확보

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단독주택 계획

- 수변공원과 인접하여 특화단독주택을 계획하여 지역가치 상승 및 지역특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



03 내포신도시 및 홍성 원도심 동반성장 방안

3.6 종합

‘내포신도시’는 공공기관 유치 위주, ‘홍성읍’은 도시재생 위주의 대안 제시

- 내포신도시 기반부문 고용 창출을 위해 혁신도시 지정, 개별 공공기관, 道 산하기관 유치 해야 함. 또한 조성에 따른 여건변화를 활용하여 배후 관광지 및 전원주거 거점을 조성, 신도시 주변지역 선도개발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.
- 내포신도시 주변 소도읍 주민의 소외와 불만이 없도록 도시재생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신도시와 주변지역 간 격차를 해소
- 실효성 있는 정책을 채택,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를 방지
 - 신도시 주변지역 성장관리 방안 마련
 - 개별입지를 계획입지로 유도
 - 취락지구 지정과 환경 개선
- 내포신도시~역세권 도시개발구역~구도심 간 지역공동발전을 유도할 필요
 - 내포신도시 입주기관(행정기관, 공공기업 등)의 친환경 농축산물 우선구매제도 도입을 위한 MOU 체결
 - 地産地消 추진조례 제정 → 로컬푸드 직거래망 구축
 - 주변지역의 마을 기업화를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

05 마무리

홍성읍은 유동인구, 내포신도시는 상주인구 증대에 주력

- 홍성읍은 홍성역-홍주읍성의 연결성 강화하고 홍주읍성 주변 보행네트워크를 구축
- 내포신도시는 고용을 창출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유치하여 상주인구를 유입하고,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가족동반 이주를 제고 필요

개별적 행정단위 보다는 통합적 상생방안 마련

- 홍성읍과 내포신도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는 안됨 (하나의 그릇으로 보아야)
- 내포신도시 내 홍성, 예산도 서로 연계협력 해야 함

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은 주변지역을 함께 고려하여 변경 추진

-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의 도시기능 분담과 연계 강화 필요

되는 투어코스의 시종점으로 육성

○ 내포신도시

- 계획된 신도시로서의 강점을 살려야 함
- 현실적인 성장의 한계와 급격한 여건변화를 감안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반영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
- 행정기능 이외에 어떤 기능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결정
- 첨단제조업공장,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 제공을 위해 개발계획의 일부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

○ 홍성 원도심

- 외부의 자본이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일자리, 생활서비스,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정주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충실할 필요성
-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든지 인센티브 제공시기가 끝날 경우 재 이주할 가능성이 높음
- 새로운 인구나 산업을 유치하기보다 기존의 문화, 관광, 역사 등 다양한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준비
- 빈집, 빈 상가, 빈 공장이나 창고뿐만 아니라 방치되거나 저이용되고 있는 학교, 청사 등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재생, 정비에 치중
- 원도심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형성된 매력을 살려 신도시 주민들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육성
- 주차공간 확보, 청운대학교 학생 등 젊은 계층이 원하는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찾고 싶은 공간 만들기
- 야시장 개설, 한우와 관련된 맛 집 알리기 및 계획적 육성, 홍주읍성 등을 통해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직장인뿐만 아니라 충청권 지역 사람들이 찾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야 함

□ 동반성장을 위한 기본방향

- 현실인식과 실현가능성 예측에 근거
 - 향후 홍성읍의 인구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
 - 내포신도시의 계획인구 달성은 어려울 것임
 - 혁신도시 시즌2에 내포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중요
 - 지정되더라도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올수 있는지가 관건이므로 대안별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대책 마련
- 내포신도시의 제약요건
 - 향후에도 2030년까지 세종시가 충청권에서 블랙홀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
 -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내포신도시에 유치하더라도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통근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
 - 일정시간이 지날 때까지 특히 주말에는 대부분 신도시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
- 어떤 개발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함
 -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광역지자체인 충청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
 - 도가 중심이 되고 홍성군과 예산군이 협력하되 상주인구 10만 명의 내포신 도시를 지족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
 -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할 것인지,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추진할 것인지?
 -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이주효과가 큰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내포신도시로 유치하지 못할 경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불가능 할 수도 있음
- 이중도시(dual city)로서 내포신도시와 홍성원도심지역의 차별화된 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
 -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인 관계설정이 핵심적인 사항
 - 과거(홍성읍)와 현재(내포신도시), 바다(남당항)와 내륙(용봉산)이 연결

토론

성공적인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

이 왕 건

(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)

성공적인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

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

이 왕 건

□ 현황과 문제점

- 내포신도시의 입지가 현재로 결정되면서 이미 예상되는 문제였으며 다른 광역지자체 도청소재지 이전과 닮은꼴의 모습을 보임
 - 남악신도시가 목포와 무안의 경계지점
 - 경북도청이 예천군 호명면과 안동시 풍천면의 경계지점에 있는 것처럼 내포신도시의 경우도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음
 - 입지선정에 정치적 요인이 개입하면서 현재로 위치가 결정되면서 예견된 문제였음
 - 동시에 진행되는 세종시가 수도권의 인구유입을 목표로 하지만 인접한 충청권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도 예상했어야 함
- 저성장 고령화, 인구감소시대로 진입하면서 과거에 비해 개발 잠재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음
 - 입지를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던 2000년대 중반에 비해 개발수요도 줄어들었고 발전 잠재력도 급격히 줄어들었음
 - 경험해보지 못한 저성장기조로 인해 향후 경제성장률 2% 달성도 어려운 상황임
 -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한 세종시, 혁신도시,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주춤했던 수도권 인구집중률이 최근 두드러지면서 50%를 이미 넘어선 상태